

2020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 의 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위 원 장</td> <td style="width: 50%;">학 교 장</td> </tr>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r> </table>	위 원 장	학 교 장		
위 원 장	학 교 장				
<p>○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18:00</p> <p>○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학교본부 2층)</p>					
<p>○ 출석위원(10명) : ○○○, ○○○, ○○○, ○○○, ○○○, ○○○, ○○○, ○○○, ○○○, ○○○</p> <p>○ 불참위원(1명) : ○○○</p> <p>○ 참석교직원(7명) : ○○○, ○○○, ○○○, ○○○(교사), ○○○(교감), ○○○, ○○○</p>					
<p>○ 회순</p> <p>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보고사항 5. 위원장 개의선언</p> <p>6. 안건심의 7. 폐회</p>					
<p>○ 의사일정(부의된 안건)</p> <p>1.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안)</p> <p>2. 2020학년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계획(안)</p> <p>3.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 수정(안)</p> <p>4.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안)</p>					
간사 (○○○)	<p>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입니다.</p> <p>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4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명 위원님 중, 4분을 제외한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충족 요인인 여섯분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승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학교장 (○○○)	<p>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4번째 인데요, 사실 1년에 한 4번정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급박한 일이 있어서 벌써 4번째 열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4번째를 열린다는거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내일 방학을 해요. 코로나로 방학이 일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있어서 4일 방학을 하구요. 그다음주에 월요일에 개학을 하게 됩니다.</p> <p>그리고 이제 9월 14일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해예요. 7개 경기장이 있는데 저희 학교도 7개 경기장 중에 하나입니다. 5종목 열리구요. 그 준비 때문에 바빠 서두르고 있습니다.</p> <p>오늘은 안건은 4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기한을 주고 논의해서 학운위까지 통과시켜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p>				
간사 (○○○)	<p>다음은 ○○○ 부위원장의 개회사 및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p>				

부위원장 (○○○)	<p>안녕하세요? 오늘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원활하게 잘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11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020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간사 (○○○)	<p>시작에 앞서 지난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회의는 총 2개의 의안이 있었습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학칙개정(안), (제2의안) 2021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신청(안)이 있었습니다. 모두 심의의결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부위원장 (○○○)	<p>금회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테마식 학습체험학습 시행 취소(안), (제2의안) 2020학년도 전공심화 동아리 운영계획(안), (제3의안)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 수정(안), (제4의안)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전자료를 잘 받아보셨을 것으로 여기고, 안전 상정하기에 앞서 제2의안 제안자의 일정으로 인해 제2의안을 먼저 상정하고, 제1의안, 제3의안, 제4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2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p>< 제2의안 : 2020학년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안) ></p>	
제안자 (○○○)	<p>저는 기술영재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입니다. 2020학년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에 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심화동아리라는 것은 명칭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구요.</p>
	<p>실질적으로 기술영재반, 기능영재반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기술인양성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술영재반의 명칭을 전공심화 동아리로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 계기는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사회장관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과도한 경쟁 구조를 지양하고자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p> <p>운영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구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기존에는 학생들의 요구로,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로, 정규 수업이전에도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강제성을 뒤서 정규수업은 100% 참여를 하고, 방과후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지금 제안설명을 하게된 내용도 야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 전국기능대회, 내년에 있을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전공심화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p> <p>가입 및 탈퇴는 저의 학교의 경우 거의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 자율적인 탈퇴를 보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가입신청서류를 나눠준 뒤에, 지도교사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특히나, 일부 타지역 학교에서는 무리한 경쟁 때문에 심야 11시, 12시까지도 훈련을 하고 해서 학생이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걸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로서 거의 해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p> <p>저희 학교는 특히, 야간운영 22시 이후에, 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려고 합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경기대회가 한달 앞두고, 45일 전이 되면 직종에 따라서 아이들이 3년간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특별히 1시간만 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오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시간정도 11시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p> <p>특히나 학생의 심리상태, 교우관계, 진로문제, 건강문제 등 이것들을 월 2회이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작성해가면서 학생들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보호할 계획입니다.</p> <p>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전문 상담교사와 또는 상담기관하고 협조해서 문제점을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p> <p>활동기록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역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p> <p>저희 학교는 전국대회 관련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금형,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로봇, 제품디자인, 산업제어, 메카트로닉스, 프로토타입 모델링해서 현재, 34명의 학생들이 전공심화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p> <p>저희 학교는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경기장으로 선정이 돼서 5개 직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중 4개 직종이 우리학교 선수들이 출전하는 직종입니다.</p> <p>물론 아이들도 기술영재반, 기능영재반 이런 용어에서 전공 심화동아리로 옮기니까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 <p>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p>
부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5p에 보시면 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이 6월 24일 마련이 돼서, 도교육청에는 7월 27일 날 공문으로 우리학교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안자 (○○○)	네 맞습니다.
위 원 (○○○)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 대책이 마련이 되다 보니,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는 이렇게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제안자 (○○○)	네, 제출 했습니다.
위 원 (○○○)	그러면 오늘 그 계획을 주셨으면 좋았을 걸 ~~, 올해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때 계획을 월별로 학생들 시간이라든가, 필요한 예산들을 갖춰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나중에라도 운영위원장님 앞으로 계획서를 공문으로 보내서 추인을 받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 원 (○○○)	위원님들 어떻게 추인을 그렇게 해주시죠? 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라 되어 있으니까?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장 (○○○)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계획을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휴일에 하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6p보면 학습권에 10시 이후에는 안된다. 휴일에 안된다. 정규수업시간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발표라는 것은 전국대회가 열리기 전에 과제가 발표가 되잖아요.
위 원 (○○○)	그 이후에는 직종마다 다른데, 대회가 있기 한달전, 일주일전, 2주일전, 라고 해서 휴일날에도 대비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휴일날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받으라는 거죠.
위 원 (○○○)	기능경기대회 일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안자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부계획 위원장님 앞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어떻게 보면 학습권 때문에 연습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기능대회 입상이 학교 위상도 살리는 거고,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망이기도 한데, 예전의 경우 끈대소리 듣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밤늦게 까지 하고, 주말을 반납하고, 거기에 선생님이나 학생이 올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시간을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고 하면 입상을 경쟁력이 있나?
제안자 (○○○)	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 그 보다는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아이들의 안전, 건강, 학습권이라 그런 것 이라 저희도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 원 (○○○)	저도 초대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인데, 방금 말씀 하셨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실제 그 아이들도 기능경기대회의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먼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아이들이 학교의 대표성을 띄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학교에서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보조해주는 입장이 되어야지.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편법이 아닌 편법을 써서라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제안자 (○○○)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동의서를 이미 받아 놨습니다. 밤11시까지, 휴일에 전국대회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학교장 (○○○)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고 규정이에요. ○○ 공고인데 그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기능영재반에 소속된 학생이 중압감을 못이겨서~~, 그래서 사회장관회의(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의무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대신 논의 되는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10시이전 까지만, 무조건 수업을 받아야 하고, 휴일에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닥쳐서 과제가 발표됐을 때(임박했을 때), 휴일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의를 마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안되거든요.
위 원 (○○○)	금방 지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운동부 아이들도 다 지금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 학교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배우는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키워서 어떤 사람이 될 건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단순히 기능공을 키우겠다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할려면 직업훈련에 가서 해도 되는 거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동부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받고 나서 주말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영재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다른 학교는 다하는데도 우리학교도 그런 목표로 들어오는 학부모도 있으니, 쉽게 바뀌어나가기 어렵다.

	을 5월에 아이가 자살한 거잖아요. 무한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자살로 내모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걸 또다시 조장하고 적어도 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존중하고 다만, 이것을 우리 학교만 했으면 불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식을 높여나갈건가?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 원 (○○○)	어차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럴수 있으면 원하는 아이는 틀림없이 있어요.
위 원 (○○○)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허락해서도 안된다는 거예요.
위 원 (○○○)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위 원 (○○○)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거죠.
위 원 (○○○)	법 테두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도 학부모이기도 해요. 제 자녀가 이 학교에 안 다닐 뿐이지, 아이들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미리 겁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운영되고 하는 거니, 그리고 대회라는 특성상 입장을 해야 그 아이에게 뭔가 혜택이 있고, 이 테두리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얘기예요.
위 원 (○○○)	학습권 보장에 있어서 야간에 10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휴일 운영, 합숙교육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제 발표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휴일에도 할 수 있는데 과제발표가 언제쯤 나오나요?
제안자 (○○○)	직종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산업용 로봇, 제품디자인은 이미 과제발표를 했구요. 내일 나머지 직종이 다 과제발표를 합니다.
위 원 (○○○)	그럼 시간적으로 대회를 앞두고 휴일에도 좀 대회가 임박해 있으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하고 싶는데 현재로서는 심의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제발표가 아직 안됐으니, 제출할 수가 없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휴일에도 할수 있다고 하니, 제가 볼때는~~
제안자 (○○○)	내일이 14일이고, 현재 휴일에 운영을 한다는게 아니고 내일 발표가 되면 휴일에도 운영할수 있도록 안전 상정을 한겁니다.
위 원 (○○○)	운영위원회가 쉽게 소집이 잘 안되니,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부위원장님이 의장님이시잖아요. 그걸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동의를 받는게 어떻겠냐?

학교장,위원 (○○○○○)	오늘 하면 되잖아요. 과제발표 전에 오늘 심의를 해놓고 과제발표를 하고 나면~~ 오늘 미리 해주면 되는 거죠.
위 원 (○○○)	과제발표하면 휴일 할 수 있다.
부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 원 (○○○)	대상자가 확정된 대상자인가요?
제안자 (○○○)	전국대회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기능경기대회 때 직종별로 3위까지 입상한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 학교는 전 직종에서 입상을 했고 직종별 인원을 다 드렸습니까?
학교장 (○○○)	설명드리면, 지방대회가 열려서 1,2,3위에 입상이 되면 우리학교 선수가 아니라 전라북도 대표예요.
위 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심화동아리 운영 대상에 메카트로닉스 8명이 확정이 된건가요?
제안자 (○○○)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 2인이 1팀입니다.
위 원 (○○○)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다른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인 1조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같은 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제안자 (○○○)	네~~. 그렇죠.
위 원 (○○○)	1학년하고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은 없죠 지금?
제안자 (○○○)	현재 2학년은 없습니다.
위 원 (○○○)	없는 경우, 한명이 빠져서 못하겠다고 하니깐 한명을 다른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한 학생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한 학생은 나는 못하겠다 해서 빠지니까 남은 1명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동으로 빠지게 되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영재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책방안을 만들어 놔야지, 똑같이 1년, 2년 고생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2학년 올라가서 나는 못해. 그러면은~
제안자 (○○○)	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제안자 (○○○)	거기에 대한 경우의 대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메카트로닉스과가 2명이 2인 1조가 된다. 한명은 프로그래머 한명은 오퍼레이터 이런 역할 분담이 되는데, 이 짝꿍 한명이 없어 졌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게 아니고 올라온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 와서 해도 티목을 가질수 있으면 되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 지도교사 입장에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 원 (○○○)	지금 예비선수가 없다는 거죠?
제안자 (○○○)	그렇죠.
위 원 (○○○)	2학년 같은 경우 내가 듣기로는 1명이 빠진다고 해서 1명도 어쩔수 없이 다른 기능영재반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과정은 포기를 하고 어쩔수 없이 다른 기능영재반으로 현재 옮겨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2인 1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놔야지? 한사람 빠지만 다른 한사람은 낙오가 되는건 ~~
제안자 (○○○)	그래서요. 제안설명 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 전혀 무관한 직종으로 옮기는게 아닙니다. 유사한 직종으로 학부모님들 동의 구하고 지도교사가 심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	이번에 사고난 학생이 2인 1조예요. 근데 이제 1명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해서 3명을 훈련시키면 나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동안 해서 다른 학생이 들어오면 레벨(수준)이 또 안 맞거든요.
위 원 (○○○)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3학년까지 잘해서 같이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중간에 한명이 라도 낙오가 돼서 새로운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도 지도교사가 만회해서 같이 끌고 갈수 있게끔 낙오자가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 (○○○)	지금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합니다. 자기 일상 다 포기해야 하고, 남들 다 퇴근하는데 남아야 하고, 잡음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하고
위 원 (○○○)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과 자체를 포기하고 어려운데 곳이 끌고 갈 필요는 없죠, 학교에서 단호하게 기능영재반을 없애든지, 필요한 영재반만 갖고 가야지?
위 원 (○○○)	이번 조치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영재에서 동아리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	물어보니까, 너희 공부는 누가 가르치냐? 누가 시켜주냐? 물어보니까 사실 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한다고 3학년들이 선배들이 가르쳐 준다고
위 원 (○○○)	과거 방법은 진짜 비교육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수업도 안받고 자기들끼리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방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애들끼리도 왕따가 있어요. 항상 사고가 나면 기능영재반에 사고가 나요. 개선된 방안은 좋은 것 같아요.
위 원 (○○○)	하기 싫은 아이들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것이니, 하고싶은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옛날에는 특기생이라고 해서 체육특기생을 뽑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되 정말 희망을 해서 하는 아이들이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 원 (○○○)	그러면, 오늘 의결이 필요한게 과제발표가 내일 한다고 하니, 오늘 의결을 해주셔야겠네요. 기능경기대회까지는 휴일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한테 결재를 받고 운영위원회 통보를 해서 심의를 받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	여기서 동의만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거죠?
제안자 (○○○)	네
위 원 (○○○)	영재반에서 앞으로 동아리반을 운영한다는게 하나의(안)인거고, 이번 기능경기대회에 한해서 이것을 승인해주자는 하는 그걸 얘기죠?
학교장 (○○○)	이번만이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로 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그때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 원 (○○○)	원래는 심의라는게 휴일날 기능경기대회 전까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쭙어 봤잖아요. 아직 과제발표가 마무리가 안되었으니, 오늘 여기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하는 걸로 하자.
학교장 (○○○)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기능경기대회 하는 컨셉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시까지만 하자. 휴일하지 말고. 그런데 과제라는게 뭐냐면 대회를 앞두고 공개를 해요. 이 과제중에서 문제가 나올거다. 아이들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휴일날도 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사항만 저희들이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취지가 내일이면 과제가 다 발표가 되니까 휴일날 한 3주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거예요. 그래서 심의사항으로 올린거예요.
위 원 (○○○)	여기서 결정하면 내년에는 이 심의 안해도 되는가?
학교장 (○○○)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합니다.
위 원 (○○○)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위 원 (○○○)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던데로 학습권 보장, 학생들 건강권은 이런것들은 다 했고, 과제발표하고 기능경기대회때까지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만 받으면 휴일날 할 수 있다.
위 원 (○○○)	그러면 이게 수업은 의무적으로 받는거고?
위 원 (○○○)	안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위 원 (○○○)	지금까지는 제가 안받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 원 (○○○)	수업 받아야되요. 옛날 체육특기생이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다.
부위원장 (○○○)	추가 질문의 없는걸로 알고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위 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동의하였으므로 제2의안인 2020학년도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의안 :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안) >	
부위원장 (○○○)	다음으로 제1의안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p>안녕하십니까? 교사 ○○○입니다.</p> <p>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감염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은 지금 올해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p> <p>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학교가 준비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시행 취소에 대한 안전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p> <p>현재, 계획된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특성상 학생들이 다함께 모여서 활동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 특성상 보면, 여행객들과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클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들어서 제주도 관광객이 훨씬더 폭증 할것으로 판단이 된다면,</p> <p>제주도로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체험을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을 지금 데리고 단체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현장체험을 즐겨야 하는 상황에서 가는 장소마다 마스크를 끼고 가야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과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과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순탄히 진행이 될까 염려스러운게 사실입니다.</p> <p>그래서 지금 감염자 수를 살펴봤는데요, 관련근거 2번을 보시면 안전을 제안을 드렸을 때 9일 동안 확인해 본 결과, 7.25에는 일별 확진자 수가 100명이상이 되었고요. 50명대를 유지하다가 10명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제가 오늘 최근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8.3~8.10까지 30명에서 40명까지 일일 확진자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p> <p>어제, 오늘 11일, 12일에는 단체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50명 이상이 일별 확진자수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p>

	<p>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는 지역 감염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지역감염자수가 확 증가하는 걸 봐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현장체험학습을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조금 유보를 시켜서 올해는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교사선생님들 설문조사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학부모님 통계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이 신뢰성이 높겠다는 생각에~~~</p> <p>전체 부모님이 참여는 하지 못하였지만, 52%의 학부모님들은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셨구요. 47%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p> <p>제가 하루 더 연장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한번 보내드려 봤는데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시행하다가 60명으로 조금 늘어났구요, 시행하지 않는다가 57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p> <p>확률적으로 보면 51%, 49%해서 거의 반반이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주신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의견이 조금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 절반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표시해 주는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하게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쪽이 오히려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p> <p>그리고, 지금 지원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개인당 300,000원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 만약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올해 시행하지 않게 되면 일단 반납을 한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된다고 해서 100% 내년에 시행할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p>
학교장 (○○○)	<p>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올해에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체험학습비를 안하면 반납해야 해요.</p> <p>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육청의 의지는 올해말에 우리가 안간다면 내년에 2개학년을 동시에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그것도 교육청 마음대로 할수 없는게, 회의를 통과해야 해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얘기 하나면, 지원해줄 뜻은 있다. 그렇지만 예정이다.</p> <p>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돈을 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뜻은 올해 가지 않은 학교는 2개 학년을 동시에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한 개학년은 분명히 해주고, 한 개학년은 올해 못갔으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예정이라고 쓴 이유가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p> <p>어제 학교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위기관리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위기관리 보다는 이 체험학습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교육청 입장은 이거예요. 공문에는 안 써있는데 모든 것은 학교에서 결정해서 해라. 가능하면 아이들도 1인 1실 써라예요. 호텔을~</p>

	현실적으로 수학여행(체험학습) 가가지고 호텔 1인 1실을 어떻게 쓰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260개가 필요하잖아요. 비용도 많이 부담해야 되구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안자 (○○○)	전반기에 실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좋은 속소를 잡아 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일정이 틀어지면서 숙소도 어그러졌거든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더 좋은 현장체험학습 조건을 학생들에게 지금 제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여러 예약이 틀어지면서 숙소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안좋은 곳으로 예약이 잡혀있는 상황이구요. 제주도 특성상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을이면 엄청나게 몰려올 예정이거든요. 곳이 학생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불안하게 실시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 원 (○○○)	학생들 의견수렴은 안 하나요?
제안자 (○○○)	학생들 의견수렴도 했는데요, 학생들 의견은 당연히 한반에 1~2명정도 빼고는 모두 다 가고 싶다고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근데 왜 그거는 여기 자료에 표시를 안해주셨는지
제안자 (○○○)	의도적으로 제가 뺀 내용은 아니구요. 그렇게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	제주도라고 지역을 단정 짓고 하는거 않아요.
제안자 (○○○)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 사항이어서, 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이잖아요. 가까운 미륵사지도 있고 오염원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새로운 위험요소를 차단시키면서 욕구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묘책이 있지 않나?
위 원 (○○○)	항상 제주도로 가시는가요?
학교장 (○○○)	아니요, 항상 조사를 해요.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주도를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저희 우리학교 입장에서는 내년에 2개 학년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상황이 내년에 좋지 않다면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는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내년에 한번 동시에 2개학년을 해보는게 낫지 않겠나?

위 원 (○○○)	내년에도 못갈수 있잖아요.
학교장 (○○○)	그럴수도 있지요
위 원 (○○○)	내년에 이월이 된다고 쳐도 그러면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장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의 의지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100%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내년에 예산을 두배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 의회에서 그래 충분히 인정이 돼, 납득할 만해 통과시키면 괜찮은데, 무슨 소리아 팔라버리면 한 학년밖에 못해주는거죠. 그래서 교육청도 확답을 못하는거예요. 도교육청의 공문 니양스는 해줄려고 하는데 확정이지 않다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바에야 차라리 유보시켜서 내년으로 넘겨서 2개 학년을 동시에 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가는게 어떨까 하거든요.
위 원 (○○○)	도교육청에서는 1사람이 숙소1인 1실을 사용하라는데 가지말라는 말이 많아요.
위 원 (○○○)	근데 어제 저희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학년 부모님들은 애내들이 예전의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래서 애네가 중학교 2학년때 수학여행을 못갔던 거예요. 그런 애들이어서 특히 이번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러움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번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러스가 코로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신종 바이어스가 생기면서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이제 현장체험 학습을 꼭 곳이 배타고 제주도로 가야하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한다면지, 이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1인 1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지인들과 섞었을 때 1인 1실을 얘기 하는 거지, 우리 애들만 있을 적에는 학교에서 똑같이 있었던 애들인데, 그 지역에서 있을적에는 숙박 문제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학교장 (○○○)	아마도 숙박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면 외부인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감염이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숙소에 있으면 감염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애들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위 원 (○○○)	통제하기 힘들어요. 애들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가지고~~
위 원 (○○○)	그거는 당연한거라고 하는데, 이제 곳이 이거를 꼭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또 못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애들 기를 좀 살려주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꼭 구경하는 것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현장체험 학습으로 애들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학교장 (○○○)	우리학교 단점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조그만한 학교 같으면 한 학년에 30명, 40명이라면 사실 크게 고민 안해도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260명 되다보니까 그럼 차가 벌써 몇 대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 원 (○○○)	인원을 나눌수도 있잖아요. 수업도 나눠서 받는데, 나눠서 260명이면 70명씩 해서 아니면 90명씩 해서 3조로 나눈다든지, 그런식으로 라도 해서
학교장 (○○○)	제주도로 가면 한꺼번에 움직일수 없어요 한팀은 동쪽, 한쪽은 서쪽, 그 다음에 바뀌어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는 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담이... 또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유예했다가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혹시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추억을 심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거예요.
위 원 (○○○)	일정이 모두 잡혀 있는 상황인가요?
제안자 (○○○)	네 일정이 모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위 원 (○○○)	몇칠로 잡혀있나요?
제안자 (○○○)	10월 둘째주 화요일~금요일까지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	혹시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로 안가면 그 프로그램이 계약했던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 업체하고 알게 모르게 불편한 관계도 생기죠? 만약 체험학습을 제주도로 안가고 도내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겠다. 하면, 그 업체는 반발을 할거 아니예요. 니네 왜 다른데는 가면서 여기는 못오냐? 행정적으로 뭘해야겠다 하면 할말 없을거 아니예요?

제안자 (○○○)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	아니요 변경, 우리 제주도 안갈라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학교 나름대로 다른 여행사를 한다던가, 자체적으로 하던가?
제안자 (○○○)	학생들에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지역으로 나눠서 현장체험으로 하는게 제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재 전북이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방문판매 교육을 받으므로 전주에 와서 확산을 시켰듯이, 사실 청정지역이 언제까지 청정지역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이구요. 하반기에 가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들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 원 (○○○)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뺐어요. 아이들은 다 그럴거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해서 학교가 뭘 할건지를 고민해야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할건지를 최대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위험이 있어서 너희들의 의견은 이렇지만 못가게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여야지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의 90%이상이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은 독일 가는거 일본 가는거 이런거 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 마저도 못가게 하면 애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월호 때문에 그때도 못했던 그런것도 있는데..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고민들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세월호 때도 군산에서 수학여행을 소규모로 가라고 허락을 했었어요. 수학여행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과거의 수학여행은 우리도 이거 아니면 여행을 못가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통해서 여행도 가고, 지금은 부모 따라서 다 다니고, 애들이 가면 노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하는 중학교에서는 주제별로 했어요. 아이들이 미리 1학기 수행과정에서 주제를 정하면 예를들면 역사면 역사, 그거에 대해서 수업과정속에 공부를 하는거예요. 이것이 다 수행평가에 다 들어가요. 이걸 가지고 가서 보고 체험하고 와서 레포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뀌어야.. 그렇다면 저는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현재 제주도로 갈 때 아이들한테 물어서 너희들이 방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바뀌어서 이런 의견들을 해서, 그 다음에 논의를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래야 아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다독여지고 아이들이 불만이지만 어쩔수 없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이들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안올라 오고, 저는 그래서 가는 걸로 하고 방법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 (○○○)	자료보시면 조사를 해보니깐 49% 학부모님은 안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위 원 (○○○)	다시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건강이 위험한데 강제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 원 (○○○)	학부모 질의응답 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부모의 의견인지?
제안자 (○○○)	학부모 핸드폰으로 직접 발송된 ..
위 원 (○○○)	그러니까요,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의 의견이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부모 입장인지 대한 의문인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거예요.
제안자 (○○○)	학생위주의 체험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체 부모님이 참여한 설문은 아니지만 절반의 학부모님이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 30%정도만 반대를 해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위 원 (○○○)	지금 2학년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였나요?
제안자 (○○○)	네 맞습니다.
위 원 (○○○)	전체를 했다구요.
제안자 (○○○)	네, 응답하신분이 101분이세요.
위 원 (○○○)	응답하신분이 101분 이라면 2학년 전체가 몇 명이죠?
위 원 (○○○)	260명 정도 돼요.
위 원 (○○○)	그럼 반은 아니네요.

제안자 (○○○)	네 그렇죠.
위 원 (○○○)	그렇다면 다시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자 (○○○)	설문조사틀요?
위 원 (○○○)	네네
위 원 (○○○)	설문조사가 중요하게 아니구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한테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기회를 조보세요. 그리고 니네들이 우리 보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거든요. 니네들이 정말로 원하면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위 원 (○○○)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오나면요? 용인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런곳이 나와요. 노는 곳으로 나와요~~
위 원 (○○○)	반대로 한번 여쭙어 볼게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가 나쁜곳이라는 얘기에요?
위 원 (○○○)	그게 아니고, 애들의 의견은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위 원 (○○○)	원래 취지는 테마식 수학여행인데, 애들은 이미 다 부모하고 같이 갔어요.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90%이상이 애들이 노는 것 밖에 없는거예요. 에버랜드나 ~~ 테마식 수학여행이 바뀔때가 됐는데 학교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깐 대규모로 이동하려면 여러가지 안전문제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니깐, 많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게 감안이 되지만, 지금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로 간다는 전제로 아이들한테 최소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아니냐예요. 꼭 무리해서 가야겠냐? 이런 설득 과정들이 있어야지? 아이들 다수가 간다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운영위원들이 못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아이들한테...
위 원 (○○○)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한번더 방법을 찾아보고, 아이들한테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시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롯데월드 놀러 가자고 하면 적절하게 해서 카바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미리 제시해 주면 이러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이러한 방법내에서 방법을 찾아봐라.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위 원 (○○○)	저희가 수학여행 인솔하면 선생님들 가면 선생님들 밤잠 못자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서~~

위 원 (○○○)	그 정도는 선생님이 하셔야지요?
부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설문조사도 다시하면 학생들은 다시 과반 수가 대다수가 가자고 할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반반이라고 또 물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설문을 하나 안하나 지금하고 똑같은 안건을 다시 잡아야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 시던가 아니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원안대로 그냥 취소하고 내년을 기약하자. 결정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자고 합니다. 학생들의 습성은 선생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위 원 (○○○)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실제 내년에도 못 갈 수 있어요. 제 의견은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더 주고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
부위원장 (○○○)	여기서 그럼 수정동의안으로 학생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다시할 수 있는가?
학교장 (○○○)	이거는 언제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제안자 (○○○)	보고날자는 부장님께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교장 (○○○)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걸 빨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알려달라. 목적사업비로 나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날짜까지 니네들이 쓰던가 아니면 반납을 하던가 빨리 결정해주면, 교육청에서 추경을 잡을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건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하는거거든요.
위 원 (○○○)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잘 못 외남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취소하자. 정확히 학교 입장, 선생님들 입장을 정확히 알겠어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것ですよ.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이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 한번쯤은 더 아이들의 의견을 더 묻고 방법을 찾아낼수 있으면 ~~~
위 원 (○○○)	시간이 없는데요. 곧 방학이라~~

위 원 (○○○)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도 되구요. 방학하면 인터넷 카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업도 그렇게 다하고 강의도 다하고 그러면서~~
위 원 (○○○)	지금 현재 제주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위 원 (○○○)	아이들한테 제주도로 가는 것은 이리이러한 요건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방학안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위 원 (○○○)	제가 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안하고 가면 좋은데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요즘 애들은 그냥 놀러가요 그냥, 단순해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서 학생들과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고, 위원님들은 학생들이 좋으면 좋은 거고,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 학생 하나라도 잘못되면 가슴이 더 아프고,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하고, 이거는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학부모님에게 설문을 한번 더 해본다든지? 학교측에서 더 추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 원 (○○○)	지금 수학여행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평생의 추억거리라고 하시거든요. 중학교 2학년때 세월호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취하는 도교육청의 지침은 학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거거든요. 수학여행을 가면 필수적으로 단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버스를 타면 다닥다닥 붙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도 사실 4인실, 6인실도 넣고 그래요. 여행사들이 ~~ 저녁때는 친구방가서 자고 난리들 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외부인들과 접촉이 돼서 조금 있다 기숙사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부산기계공고가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오늘 뉴스검색을 해보니 현재는 3명의 늘어서 전수검사가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저는 추억도 중요하고 학생의 의사도 중요해요. 사실은 학부모 의견을 조사했지만, 이거 전에 학급별로 토론이라도 좀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자료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실 텐데, 지금 급선무는 학생들의 추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가지마라 해주면 좋은데, 지난번 기숙사건도 그랬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하는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그러면 학교장은 심의를 안받은 게 되니까? 이번 때는 정말 현장체험 가기는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가는거라 교사 입장에서 안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단지 가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전파의 감염이 있다고 한다면 수학여행을 안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원금 300,000원 정부 돈 안쓰면 어떻게 되니까?

	다만, 이제 겨울철 해서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뭐 자비를 들어서라도 가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간다고 학생 희망, 학부모 절반 희망한다고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할 때에 희망조사는 2~30%, 나머지는 안전이 가능한가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위 원 (○○○)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할려고 한다면, 내일 오전이라도 2학년 아이들에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봐요~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거 없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방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1~2시간이라도 긴급하게 토론을 해서 니네들이 결론을 내라. 위원회에서 결론을 못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받아들일때 수긍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위 원 (○○○)	제가 2학년 전체 수업에 들어가서 물어봤거든요. 애들은 내년에 갈수 있다면 하면 수공을 해요. 내년에 갈수 없다고 하면~~
위 원 (○○○)	그니까, 아이들이 몇가지 경우의 수를 뒤서 얘기를 하고 그속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진 않겠지만, 1명이라도 걸리면 부산기계공고 같은 경우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 이거?
위 원 (○○○)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깐? 안전상 안가는게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일 학생들 토론을 시켜서 선생들과 대화를 해서 ~~
위 원 (○○○)	우리 위원회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아이들에게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니네들 때문에 깊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답이 안나와서 너희에게도 한번 묻는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 원 (○○○)	시간적으로 가능하시다면 ~~
학교장 (○○○)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해요?
위 원 (○○○)	가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제주도 아니더라도 한옥마을 같은데를 단체에서 외부인이 접촉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만의 공간을 섭외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위 원 (○○○)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대안을 했을 때 애들이 그러면 안가도 ~~ 그러면 OK 탕큐지.
위 원 (○○○)	교장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안갈 때 안가더라도 우리가 가지말자고 취소를 할 때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애들 니네들 때문에 열심히 토론을 해보고, 액션 정도는 취해주는게 그래야 나중에 운영위원들도 아이들 볼때도..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리고 실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안건을 학교나 학생한테 위임을 한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나요?
위 원 (○○○)	그거는 안됩니다.
위 원 (○○○)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간다고 결정을 하면 무조건 진행하실 거예요?
위 원 (○○○)	학교장이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제고 요청을 할수는 있겠지요.
학교장 (○○○)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통보만 해주면 돼요. 이의신청이 아니라 통보만 해주면 돼요.
위 원 (○○○)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학생의 안전은 일단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지만, 학교장 으로서는 안전을 고민안 할 수는 없는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한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늘도 50명으로 치솟았더라구요. 부산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1명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나 추적을 해보니 러시아 선원들로부터 ~~
위 원 (○○○)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가는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학교측에서 나중에 고민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걸로 하시죠.
학교장 (○○○)	사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결정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거를 체험학습 진행하다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책임은 학교장이 다 져야해요.
위 원 (○○○)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서 학교장님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신다면 ~~
부위원장 (○○○)	우리가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위 원 (○○○)	학부모님들하고 다시 조사를 해보시던가고~~, 안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부위원장 (○○○)	그런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어필을 곳이 우리가 위험을 가지고 올해 목숨걸고 갈래 아니면 내년에 한번 좋은쪽으로 해서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을 기약하자고 운을 띄워놔되 될 수도 있고
위 원 (○○○)	그렇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교장선생님이 내리는 것으로?
부위원장 (○○○)	수정계획안으로 해야 되나요?

위 원 (○○○)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위원님이나 ○위원님처럼 결정을 미루고 한번 더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라. 사실 주무부서에서 미흡한 거죠? 학생들 토론이나 학급시간을 이용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그게 안되었으니, 운영위원회 심의를 미루는 방법 다음에 하는방법,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단점이 뭐냐면,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려면 적어도 일주일전까지 공고를 해야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더라도~~ 또 하나는 학교장에게 위임은 가능한데 지금 학교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까 ○위원님 말씀 여기서 가는걸로 의견 해놓고 ...
부위원장 (○○○)	그러면 미뤘다가 다음주라도 긴급 안건으로 해가지고~~
위 원 (○○○)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연다. 동의해서 넘기면 되는거지 뭐.
위 원 (○○○)	교장선생님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체험학습을 보내자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위험요소가 너무 커서 우리학교 입장이나,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깐 고민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그러고 나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하죠 뭐~~,
위 원 (○○○)	학생들은 무조건 간다고 할건데~~
위 원 (○○○)	아이들한테 오늘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너네들 생각대로 체험학습을 보낼려고 애를 썼으나 ~~
학교장 (○○○)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위 원 (○○○)	충분히 입장 이해 해요. 교장선생님,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우리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너네들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한번쯤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학교장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가는걸로 하구요. 만약에 학생들한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만약에 내년으로 연기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년예산을 12월달에 결정이 돼요. 설령 올해 2학년 아이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이 깎이잖아요. 한 학년만 지원이 된다면, 300,000원은 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가는 방향으로 ~~,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연수도 그렇고 글로벌 현장학습도 그렇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현재 남으니깐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도 교육청에서 12월달이면 예정이 되요. 지원해준다. 못해준다.
위 원 (○○○)	교장선생님, 그럼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학교장 (○○○)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300,000원 정도는 보전해주고, 아이들한테 내년에 상황봐서 제 주도로 가든지 못가면은 소규모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과별로 간다든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 애들이 가자고 해요. 거의 8~90%. 그러면 애들이 가자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	그러면, 좀 좋은 말씀이 후반에 나와서,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학교 예산이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학생들 300,000원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있으니까?
학교장 (○○○)	학교 예산 세우면 되니까요.
부위원장 (○○○)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지금 교장선생님의 뜻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의견을 물어보고 그 것은 내일은 애들 설득이 짱아요.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하고 지금 시기상조이니까...
학교장 (○○○)	내일은 방학이니까. 개학하고 시간을 가져서~~
위 원 (○○○)	다 모아서 반별로, 충분히 얘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위 원 (○○○)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의견은 수렴했을 때 왜 안되고, 왜 어렵고 그래서 내년 해야 한다. 그러한 아이들한테 설득력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갈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니, 학생들한테는 아쉽지만 무조건 가는걸로 결정이 됐다. 내년엔~~~ 예산도 교육청이 지원 안되면 학교예산으로 해서 그때 코로나가 창궐만 안하면 우리는 가자. 조금만 늦추자. 학생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하면 학생들도 반발은 없을 것 같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좋습니다.

부위원장 (○○○)	동의하였으므로 제1의안 2020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행 취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제3의안 : 2020학년도 역량강화계획 수정(안) >	
부위원장 (○○○)	다음은 제3의안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p>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입니다.</p> <p>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은 2월달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변경되고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학교 등교가 미려진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3월달 부터 실시하는 것들이 안되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p> <p>미리 수정된 계획을 말아야 하는데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주요내용을 보시겠습니다.</p> <p>‘프로그램 과정별 시기 및 시간 조정’ 가)에 보시면 변경전에는 기능강화 역량강화교육으로 기능사 실기자격을 딸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4, 6, 8, 11월 회당 1주씩 운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p> <p>그런데 4월달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실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한 5월말 이후로 6, 8, 11월 세 번 1회당 2주로 늘려서 실시 하려고 합니다.</p> <p>가) 역량강화 교육이 3~7월 1학기 운영이 8주, 8~12월 2학기 운영 8주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3학년 등교가 5월 20일 이후여서 마찬가지로 기간변경을 하였습니다.</p> <p>나)에 보시면 2020년 역량강화교육 운영 변경 후의 역량강화교육 보시면 2020.6~8월까지 1학기 운영을 5주동안 하는 것으로 했고, 9~12월까지 2학기 운영을 7주로 하였습니다.</p> <p>변경전에는 8주였는데 변경후에는 7주입니다. 왜냐하면 1학기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이 뒤로 미뤄져서입니다.</p> <p>방학 중 역량강화는 똑같이 동계 때 2주를 운영하는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p> <p>변경후 4)를 보시면 전공집중훈련 3학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이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연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학생들 기능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3학년들만 5.25일 ~ 5.28일 1주를 진행했습니다.</p> <p>총 운영시기는 당초 계획한거와 변경 후 계획한거는 운영기간이 똑 같습니다. 주는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p>

	<p>한 장 더 넘기시면 1~2학기 역량강화교육 운영 계획을 보시면 운영시간 대비 소요금액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16주인데 12주로(5주, 7주) 되었고, 기능역량강화에서 월~금요일까지 하는 기능강화 부분에서는 원래 4주씩이었는데 3번으로 3회 6주 변경운영하게 되었습니다.</p> <p>3)교재 및 재료구입 관련 부분인데 역량강화 수업이 변경되면서 계획대비 여러 가지가 같이 혼합되다보니 교재나 재료를 구입할 때 원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하거든요.</p> <p>그런 부분을 조금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을 좀 저희가 소모품대장을 작성해가지고 별도의 심의를 생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을 제출하였습니다.</p> <p>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p>
위 원 (○○○)	전·후의 시간은 동일한가요?
제안자 (○○○)	주수가 동일합니다. 원래 기능강화가 1회당 1주씩이니까 4주 들어갔고, 변경 후에는 8주에서 5주로 했으니까 3주 줄어들고 8주에서 7주 했으니까 총 4주가 줄어들었음. 기능강화에서 3회 2주니까 3주 늘어나고 3학년 1주한거 더해서 총4주해서 운영 주수는 동일합니다.
위 원 (○○○)	주가 동일하다는 얘기하고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하고?
제안자 (○○○)	시간은 기능강화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월~목 다하는 것이 아니고 월, 화, 목만 진행하고 있고 기능역량강화는 경우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2주동안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월~금요일 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그전보다 시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	<p>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학생들 수준이 학습의 질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느낌입니다. 이 학교 학업수준의 질이 하향되는 느낌을 받는다.</p> <p>학생들의 수준이 하향되면 선생님들 가르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지겠죠. 점점 학습의 질이나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걸 저만 느끼는 건가, 선생님들도 느끼는 건가 모르겠지만 역량강화나 주입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제안자 (○○○)	기능강화는 원래 1주씩 운영 하려고 했으나, 선생님들이 1주만으로는 학생들 기능사 훈련에 힘들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1주만 하면 선생님 또 언제 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그것을 해소하고자 2주로 늘린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수는 같고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크게 예산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 운영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 (○○○)	여유있게 실습을 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체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제안자 (○○○)	네. 원래 똑같은 계획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많은 기간을 잡아 할 수 있는 것 작년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보다 추경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	코로나 전에도 실습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부족하면 애들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숙력작업도 안되고
제안자 (○○○)	역량강화는 교과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능강화만 기능사 자격증의 내용을 하고요, 나머지 직무를 통해서 학생들이 회사에 나가서 그 회사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 모자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 원 (○○○)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제안자 (○○○)	네 맞습니다.
위 원 (○○○)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위 원 (○○○)	아까 교재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신거 있잖아요?
제안자 (○○○)	네. 교재는 원래 학생들이 돈을 내고 사야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재료를 책정해서 지출을 하는데, 원래는 그런 교재를 살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매번 거쳐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살때마다 계속.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추가 시작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재료를 심의를 받고 심의를 맡은 다음에 보통 2~3주 지나가므로 실제로 이제 가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승인해주시면 소모품대장 해가지고 내부결재해서 철저히 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학교에서 사 주고 애들이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반납, 도서관에 비치한다는 이야기죠.
제안자 (○○○)	네. 도서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받고요, 재료나 실습재료는 소모품대장으로 운영합니다.
학교장 (○○○)	원래 재료를 살 때 마다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자 (○○○)	네 재료를 살 때 마다.
학교장 (○○○)	그것은 아닌거 같은데

위 원 (○○○)	그것은 지난번에 처음에 예결산 할 때 다 통과된 거예요. 거기서 준 예산이 달라진게 있어요?
제안자 (○○○)	달라진거는 없는데 원래 규정에 보면
위 원 (○○○)	그래서 봄에 예결산할 때 이 실습비를 그때 그때 승인을 못 올리니 일괄로 승인을 하고 알아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안자 (○○○)	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위 원 (○○○)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장 (○○○)	강사료나 재료를 살 때 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닌거 같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방과 후 계획운영하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다. 심의를 받으면 그 안에서 쓰면 되지 할 때 마다 강사비가 재료비가 얼마인가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안자 (○○○)	규정에 보면 구입을 하게되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	저희가 년초에 했을때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만 보고하면 되니까. 매번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유도리 있게 편하게 하시면 되요.
제안자 (○○○)	네 알겠습니다.
위 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	추가 질문의 없는걸로 알고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위 원 (○○○)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동의하였으므로 제3의안인 2020학년도 역량강화교육 연간운영 계획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의안 :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안) >	
부위원장 (○○○)	제4의안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생활관 ○○○ 교사입니다. 공교롭게 부산기계공고에서 어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제가 안건을 말씀드리고 좀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경에 생활관 운영여부에 대해서 심의했었는데 오늘은 통학생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p>코로나19관련으로 도교육청지침에 의해서 익산 시내 학생의 통학을 유도하였으나, 통학생중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생활관 입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우리지역은 또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돼서 심의하고자 합니다.</p> <p>심의할 사항은 통학생들이 생활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 여부와 허용을 한다면 다인실 사용 여부 이것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합니다.</p> <p>뒷면에 운영현황이 있는데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2인 1실을 배정하고자 했으나 2~3학년같은 경우는 2인1실을 배정하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3인실에 21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학년단위로 해서 층과 관을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2~3학년들이 사용하고 남은 공실이 있었는데 1학년 학생들이 2~3학년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화장실, 샤워장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21실을 3인실로 돌렸습니다.</p> <p>8월 3일자 학생수를 보면 756명인데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1학년 57명, 2학년 15명, 3학년 10명 정도 통학생들이 입사를 희망하였고, 참고로 2~3학년들 공실이 남았을 때 멀리 있는 학생들을 추가로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p> <p>이상으로 간략하게 뒷면을 보시면 지도대책 사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p>
위 원 (○○○)	현재 공실이 있나요?
제안자 (○○○)	공실은 3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방 3개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방으로 8개가 남아있고, 1학년들과 관계가 없는 2학년 등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주말 잔류자들 원거리 학생들 학년별로 1학년 27명, 2학년 25명, 3학년 25명 한 80여명 원거리 학생 잔류자들 타시도 학생들이 있는데 13개 정도 항상 공실이 있고, 주중에는 갑작스럽게 고열이 발생한다든지 위급상황 발생하면 일시적 관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입사희망조사가 82명인데
제안자 (○○○)	1학년 57명, 2학년 15명, 3학년 10명으로 82명입니다.
부위원장 (○○○)	지금 이렇게 된다면 부득이 다인실을 1학년을 제외하고 2~3학년은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희망자가 들어온다면 부득이 3~4인 다인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장 (○○○)	제가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하자 해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기숙사에 안집어 넣어주냐? 우리가 학부모님들을 설문조사 해서 얼마정도가 희망을 하는지 파악하고, 몇 명만 들어오면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설문을 했는데 80명이 희망을 해서 결국은 옛날처럼 3~4인실을 사용해야 한다.

	<p>또 한가지 부산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던게 뭐냐면, 그러면 희망 학생을 받으면서 기존에 2인 1실, 3인 1실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더니 조금 있으면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작년까지는 나갈 수 있는 시기가 10월 10일 정도였으나, 올해는 전국에서 코로나19로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바꿨어요.</p> <p>10월 5일부터 취업이 가능해요. 10월 5일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0월 5일보다 2주정도 ~ 한달정도 먼저 현장실습 나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허용 해줬어요. 그럼 역산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9월달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p> <p>달력을 보니 9월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기능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학교가 쉬어요. 아이들이 9월 14일 그 다음주부터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2주정도하고 취업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3학년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빠지므로 이 희망자들을 현재 인원수 유지하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p>
위 원 (○○○)	그러면 이 안이 당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9월달에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인가요?
학교장 (○○○)	다시 말씀드리면 배경은 아이들을 다 수용하자가 아니라, 민원이 많아서 과연 몇 명인가 파악해보자 해서 한거다. 이 82명을 당장 희망하는 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니 2~3주 후에 기능경기대회 끝나고 아이들을 받으면 큰 무리없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저는 2학기 시작해서 받아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중학교 친구에게 물어보니 ○○학교는 지금도 격주로 하더라고요. 1학년 수업 받고, 3학년 고정으로 가고, 2학년은 건너 띄고,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지속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외고는 전원 기숙사로 3인 1실인 이내로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해도 될 거 같고,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거 같으니까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생각합니다.
위 원 (○○○)	동의합니다.
학교장 (○○○)	말씀하세요. 지금당장 집어 넣는데도 동의한다는 말씀이세요?
위 원 (○○○)	지금 당장 넣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2학기부터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위 원 (○○○)	지금당장 할수 없잖아요. 이제 방학인데~~
위 원 (○○○)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시기만 조절하면 ~~

위 원 (○○○)	3학년 현장실습이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10월 5일부터 취업을 나갈 수 있으니까 2주정도 생각하면 9월 중순 15일 이후인데 학생들이 우루루 주욱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희망자 리스트를 만들어 기숙사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방비는 데로 입소시키는 걸로 ..
위 원 (○○○)	그런데 한꺼번에 2인 1실하던 것을 일부 3인 1실을 하고 있는데 또 3인 1실로 바꾸면 큰 무리는 있지 않아요. 지금상태에서 초기처럼 생활속에서 방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거리두기를 했으니까?
위 원 (○○○)	○위원장님, 지금 부산기계공고 상황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지침들이 1인 1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영위영위원회에서 의결할때는 도저히 안되니까 2인 1실로 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감선생님이 배치를 하다 보니 학년이 섞이니까 예를들면 3학년하고 1학년이 섞이면 1학년이 만들어갈려고 하니깐, 부득이 3인실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80여명이 들어오면 3인실이 대다수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사실 위험부담이 크고 아까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것은 3학년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쪽쪽 빠져 나갈 것 같으니 그때를 맞춰서 하자는거고~~
위 원 (○○○)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불난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보면~
위 원 (○○○)	저는 걱정이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1인실 권장했는데 실제로는 1인실 불가능하잖아요.
위 원 (○○○)	그니까
위 원 (○○○)	코로나 환자가 집단발생했을때는 역할조사를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교육청 지침을 이렇게 어겼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인 1실로 했는데 제가 추후 보고도 하자고 했던거구요. 운영위원에게 원래 2인 1실하자고 했는데 배차 하다 보니 3인 1실도 일부 있다고 운영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던건데 지금 우리가 80명을 수용한다고 해서 3인실이 대부분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사건이 안터지면 상관없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왜 지침과 매뉴얼을 안지켰냐 거기에 책임문제가 따르니, 조금더 참고 교장선생님 제안대로 현장실습 빠져나가면 금방 10월 중순쯤되면 대부분 들어갈수 있을 것 같아요.
위 원 (○○○)	원래대로 해도 상관없고, 제가 봤을 때 잡음이 또 많이 날것 같아서 그런거죠.
위 원 (○○○)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위 원 (○○○)	그러면 확보되는 날자를 정확히 못박지 말고, 이전에 있는 날자들이 있잖아요. 공실도 있고, 3학년이 취업이 나가는 일자들이 있으니까 확보가 되면 일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받아들이는게 오히려 그런 불협화음이 안생기~~

학교장 (○○○)	82명의 자리가 생기면 그때 넣는다는 거죠?
위 원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불협화음이 안나지.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82명의 부모님들은 모두 불편해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순번타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 날수 있으니까...
위 원 (○○○)	반대로 기숙사를 나갈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아요?
제안자 (○○○)	생활관 생활이 원칙인데 2~3학년의 경우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다시 생활관에 들어가서 6시에 일어나라, 11시에 취침 할려면 많이 힘들거든요. 나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보호자가 와서 싸인을 하고 보호자 입회하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게 근태상황이 제일 문제가 되죠. 생활관에 있으면 제가 깨워서 등교까지는 확실하게 시키는데 집에서 다니다보면 조금 늦어지고 그런거 꼭 인지시키고 학부모님 동의하에 퇴사시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서, 다른 경우는 이제 잘못된짓을 해서 퇴사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 원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82명 수용할대 일시적으로 입소하는걸로 하시죠~
위 원 (○○○)	취업이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가능하겠어요?
제안자 (○○○)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제안자 (○○○)	저는 어차피 조정하면 힘들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이 섞여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몇 개 공실들이 있는데요. 확진자도 없고 통으로 3학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형관이 있는데 35개호실이 있습니다. 2인 1실이고 70명까지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섞이고 한 학년이 다 들어갈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 되고 고민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들이 한꺼번에 빨리 나가주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취업을 일찍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늦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을 다시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학교장 (○○○)	큰 틀에서 전체가 비면 받는걸로 하고, 내부적인 포지션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위 원 (○○○)	우리학생들이 1실 2인을 쓸려면은 얼마나 방이 부족해요?

제안자 (○○○)	8월 3일 기준, 전교생이 756명인데요. 그 호실은 272호실이 있습니다. 주말 잔류호실까지 다 포함해서요. 2인 1실 사용한다고 한다면 540명정도 사용할수 있는데요. 210명정도는 부족하다고 봐요
위 원 (○○○)	저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기회가 되니까 중기부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지킬수 없는 1인 1실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2인 1실까지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 원 (○○○)	내년에는 학생수가 줄잖아요.
제안자 (○○○)	○위원님 말씀도 맞는게 우리가 시설 노후화도 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3학교 키워 주는 학교인데~~
위 원 (○○○)	우리가 중기부로 넘어가면서
부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 원 (○○○)	없습니다.
부위원장 (○○○)	동의하시겠습니까?
위 원 (○○○)	네
부위원장 (○○○)	동의하셨으므로 제4의안 통학생의 생활관 입사에 관한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폐회에 앞서 기타안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안 건 >	
위 원 (○○○)	예산문제 추경에 대해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학교장 (○○○)	추경이요
위 원 (○○○)	저희가 최근에 학부모활동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학생규모별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하셨던 회장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부모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학교에 안세워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위 원 (○○○)	안보내줬어요

위 원 (○○○)	우리가 국립고등학교라서 교육청에서 해당이 안되서 안내려보내 줬다고 했고 대신에 이제 그 장학사 말로는 우리는 중기부에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내려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하고 소통을 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좀 책정을 해줘라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
위 원 (○○○)	누구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교장선생님 혹시 아세요~~
학교장 (○○○)	우리 학부모 담당 선생님이 화가나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북기계공고는 국립이니까 우리가 못주니까 학교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써라. 그얘기 거든요. 추경이라도 해서 세워 줄수 있으면 얼마정도 필요한거죠?
위 원 (○○○)	금형지도 600,000원정도 공조를 해서 강사도 부르고 간식도 넣고 했었어요. 1학기 행사는 끝났어요.
학교장 (○○○)	학부모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세워져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안될까요?
위 원 (○○○)	그게 얼마나 있어요?
학교장 (○○○)	백얼마?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운영비를 말씀하신거예요?
위 원 (○○○)	운영비는 아니고~
위 원 (○○○)	우리가 당연히 학부모 연수비는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추경 차원에서라도 학부모 연수비를 책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학교장 (○○○)	제가 예산의 구조는 머릿속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위 원 (○○○)	지금 당장 결정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학교장 (○○○)	행정실하고 어떤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0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록자 총무부 ○ ○ ○	